

채 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모-자녀관계, 자녀의 성숙도와
집단따돌림 피해정도간의 관계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유 지 영

부모-자녀관계, 자녀의 성숙도와
집단따돌림 피해정도간의 관계

채 규 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유 지 영

인 준 서

유지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인

심사위원 _____ ①인

심사위원 _____ ①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 현상과 부모-자녀관계,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학교 적응, 또래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으나 직접적으로 집단따돌림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 서적과 설문조사 등에서 집단따돌림 피해자들의 개인적 특성이 눈치가 없고 친구관계 유지능력이 부족하며 미성숙하다는 보고가 있으나 성숙도와 집단따돌림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연구는 없었다. 또한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성숙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자녀관계가 직접적으로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성숙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숙도를 매개로 한 경로모형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서울, 경상도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총 581부가 사용되었다. 평가도구는 촉진적 의사소통 척도, 가족의 응집성 척도, 심리·사회적 성숙도 척도, 집단따돌림 피해척도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와 부모-자녀관계(촉진적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성), 성숙도의 하위요인들(자존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친화력 등)에서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부모-자녀관계와 성숙도가 긍정적일수록 집단따돌림 피해정도가 낮았다. 둘째, 자녀의 심리·사회적 성숙도는 부모-자녀관계의 하위요인들(개방성, 수용성, 긍

정적 존중, 가족의 응집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의 심리·사회적 성숙도의 밀접한 관련성을 시사한다. 또한 중다회귀분석을 통한 설명력을 알아본 결과 부모-자녀관계가 심리·사회적 성숙도를 22% 설명하였다. 셋째,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를 예언하는 심리·사회적 성숙도의 하위요인들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사회유능성, 정서적안정성 순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심리·사회적 성숙도의 하위요인들이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를 약 13% 설명하였다. 넷째,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를 예언하는 부모-자녀관계 하위요인들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중다회귀분석에서 가족의 응집성과 수용성이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부모-자녀관계의 하위요인들이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를 약 5% 설명하였다. 다섯째, 심리·사회적 성숙도를 매개변인으로 한 경로분석에서는 모든 직접, 간접효과를 고려한 모델보다 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가족의 응집성이 집단따돌림에 주는 직접효과를 제외한 모델이 더 간명하고 적합한 모델이었다. 마지막으로 성별, 학교급별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알아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변인들로는 자기효능감, 정서적안정감, 성정체감, 가족의 응집성,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변인들로는 수용성과 의사소통능력이었다. 또한 학교급별로 알아본 결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변인들로는 정서적 안정성, 성정체감, 학교 적응력, 가족의 응집성이 있었다.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 피해자들을 위한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 가족치료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피해자 개인의 성

속도를 증가시키는 프로그램 방안에 대한 모색을 제안한다. 그러나 가정 환경 외의 지지그룹이나 소속된 집단과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간과하였고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단체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학생들을 구분하지 못했다. 이런 제한점은 추후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용어의 정의	4
1) 촉진적 의사소통	4
2) 가족의 응집성	4
3) 심리· 사회적 성숙도	5
II. 이론적 배경	6
1. 집단따돌림의 개념	6
2.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특성	9
1) 성숙도와 집단따돌림의 관계	9
2) 부모-자녀관계와 성숙도의 관계	2
3) 부모-자녀관계와 집단따돌림의 관계	5
3. 연구목적 및 가설	16
1) 연구목적	6
2) 연구가설	7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8
1. 연구대상	18
2. 평가도구	18
1) 촉진적 의사소통 척도	9

2) 가족 응집성 척도	20
3) 심리·사회적 성숙도 척도	20
4) 집단따돌림 척도	21
3. 연구절차	22
4. 분석방법	23
IV. 연구결과	24
1. 연구대상자의 집단 분류 결과	24
2. 성별, 중·고등학교에 따른 집단간 차이검증	25
3.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와 각 변인들과의 관계	27
4. 부모-자녀 관계의 하위요인들과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의 관계	28
5.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29
6. 심리·사회적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30
7.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관계의 하위요인들	31
8.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성숙도의 하위요인	33
9. 경로분석	34
V. 논의 및 결론	35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4
표 2.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25
표 3.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학교급별 차이검증	26
표 4.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와 각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27
표 5.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부모-자녀관계의 하위요인들과의 상관관계	28
표 6.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를 종속변인으로, 부모-자녀관계와 성숙도를 예언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	29
표 7. 심리·사회적 성숙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자녀관계'의 하위요인들을 예언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	31
표 8.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자녀관계'의 하위요인들을 예언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	32
표 9.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심리·사회적 성숙도'의 하위요인들을 예언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	33
표 10. 집단따돌림에 대한 모델 1과 모델 2의 비교	38
표 11. 모델 1과 모델 2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38

그 립 목 차

그림 1. 괴롭힘, 집단괴롭힘, 따돌림, 집단따돌림의 관계	9
그림 2.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에 대한 모델 1	35
그림 3.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에 대한 모델 2	35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집단따돌림현상은 한국사회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현상이다. 그러나 따돌림 피해 아동에 대한 문제행동의 심각성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집단따돌림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각성이 점차 표면화되면서 상담기관, 학교기관,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실태와 대책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집단따돌림은 단지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일어나는 단순한 학생들 간 장난의 수준이 아니라 성인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학생 뿐 아니라 가해학생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Olweus(1994)에 따르면, 집단따돌림은 피해아동이 가해아동이 되기도 하고, 가해아동이 다시 피해아동이 되기도 하는 등 순환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또래들 간의 불균형적 힘의 관계를 지켜보고 방관하는 청소년들에게까지 심각한 무기력감, 우울, 낮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 및 학교 부적응의 문제를 야기한다.

청소년 대화광장에서 전국 초, 중, 고교 학생 1624명을 대상으로 1998년 9월에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서, 응답자중 48.1%가 ‘친구를 따돌린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결과에서 50%에 가까운 학생들이 친구를 따돌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이는 집단따돌림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박경숙 등(1998)이 1998년에 초, 중, 고교 68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집단따돌림 피해비율이 높았고 설문에 응답한 학생 중 24.2%가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신(한겨레신문, 2001)의 조사에서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응답자가 62%로 나타났다. 이는 2명중 1명 이상이 집단따돌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학교 2, 3학년생 1380명을 대상으로 8개월간 집단따돌림과 자살/자해 관계를 추적 조사한 결과, 만성적인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학생들이 정상 학생보다 자해 및 자살시도의 위험이 2.28배 높았다(한겨레, 2001). 이는 집단따돌림을 겪는 피해자들의 고통수준이 단지 부적응적 행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살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드러낸다.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서 학교에서의 친구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숙과 심리적 변화, 정서 생활의 변화 이외에도 사회적 성숙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김충기, 1990). 그러므로 친구관계를 통해 청소년들은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의 인정, 지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 간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 친밀감, 동조의식 등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부모보다 친구들에게 더 의존하게 되며 그 소속된 집단 내에서 이탈되는 것을 두려워함으로써, 또래들과 어울리거나 같은 태도나 가치관을 가지려고 애쓰는 현상도 나타난다. 또래집단에 속하게 되면 구성원들은 그 집단의 특징을 드러내는 외모, 가치관 등을 공유하고 집단이 하는 행동에 동참하려고 하는 경향이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개인이 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 개인과 집단간의 일치도가 증가되는 것을 동조현상이라고 한다(Allen,

1965). 즉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들 간의 유사성과 동질성을 확인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특성을 갖고자 노력한다. 이는 청소년기에 또래집단의 규준에 동조하는 행동이 또래들로부터 강한 강화를 받게 되므로 개인은 집단이 하는 행동에 동참해야만 하는 압력을 받게 되고, 이로써 집단따돌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한국청소년상담원, 1999). 즉, 집단 구성원들 간의 유사성과 동질성이 없을 경우 때로는 구성원들과 다른 한 명을 골라 낙인을 찍고 그 대상을 괴롭히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다. 어떤 여고생이 은따(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를 당한다는 이유로 투신자살을 하였고(한국일보, 2002), 자녀들이 학교 폭력에 노출되는 것에 한 대책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이 ‘왕따 보험’ 경쟁(한국일보, 2001)을 벌릴 정도로 집단따돌림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왕따 당하는 것을 걱정해서 조기 입학하는 초등학생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일보, 2004).

집단따돌림 피해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사회적으로 무능하다고 여기며 자신감이 부족하고, 타인에게 정당한 요구조차 하지 못한다(이춘재, 이시재, 광금주, 1997). 또한 집단따돌림 피해는 전 학년에 걸쳐 매우 안정적인 성향을 지니며(Epstein, 1990) 인생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적응적인 결과를 수반한다(Hodges, Malone, & Perry, 1997).

이제까지의 집단따돌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두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피해자의 개인내적 특성 분석을 통한 접근과 가해자의 행위나 의도 분석을 통한 접근이 그것이다(구본용, 1997). 그리고 다만 실태분석에 그치고 있고(김용태, 박한샘, 1997) 대단히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자녀관계, 자녀의 심리·사회적 성숙도가 집단따돌림피해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집단따돌림의 피해정도가 심각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집단따돌림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초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용어의 정의

1) 촉진적 의사소통

촉진적 의사소통(facilitative communication)이란 근본적으로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요소를 증대시키고,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는 감소 또는 제거시킬 수 있는 진정한 인간적 만남을 의미한다(변영인, 1999). 이는 기본적인 조력관계를 형성,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내면적 세계를 이해하고 탐색하여 문제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박성수, 1993).

2) 가족의 응집성

가족응집성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성 혹은 심리적 유대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다. Olson 등(1983)은 가족응집성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로 정의하여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점수에 따라 과잉분리(disengaged), 분리(separated), 연결(connected), 매우 연결(very connected)의 4가지 수준으로 나뉜다. 응집성이 지나치게 높은

‘매우 연결’ 상태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지나친 동일시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이 지나치게 높고, 응집성이 매우 낮은 ‘과잉분리’ 상태에서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은 떨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가족적응성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는 비정상적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적 연구에서 곡선적 해석을 할 때 주로 적용되는 척도이며,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유대가 긴밀한 것으로 받아들인다(Olson 등, 1992).

3) 심리·사회적 성숙도

성숙이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학자에 따라 정의가 다양하다.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성숙’은 사회인으로서 적절한 지적발달을 이루며 사회생활 속에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해 가면서 사회적 행동의 범위를 넓히고,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서의 인생관을 확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김문정, 1997). 또한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성숙은 한 개인이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심리적 특성, 일반적으로 건전하다고 생각되는 특성으로 건전한 인격 특성 및 정신건강이 이와 유사한 개념이다. 즉 심리적 성숙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심리적 특성을 갖는 심리구조의 질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박정희, 2002). 또한 심리·사회적 성숙도란, 한 개체가 심리내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성숙해 가는 것으로 일생을 두고 지속되는 과정이고, 이는 적응과 변화를 포함한 그 이상의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김인자, 1982).

II. 이론적 배경

1. 집단따돌림의 개념

최근 들어 우리는 ‘왕따’, ‘집단따돌림’, ‘집단괴롭힘’, 심지어는 ‘전따’, ‘은따’ 등의 신조어들을 자주 접하게 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는 매스컴의 보도도 수시로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용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와 학부모 및 정책 입안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이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구분하면, 괴롭힘은 원인적인 행동이고 집단따돌림은 괴롭힘 행동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강진령, 유형근, 2001).

Olweus(1984)는 ‘bullying’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될 때, 그 학생이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폭행이나 구타뿐 아니라, 위협한다거나, 못살게 굴고, 놀리는 것, 그리고 따돌리는 것 모두를 포함한 포괄적인 범위의 행동을 말한다(Olweus, 1991, 1993). 이는 피해대상에게 대한 구타나 폭행과 같이 외부적으로 직접적인 공격행동을 하는 것에서부터 외부로 드러나지 않지만 어느 한 집단에서 소외시키거나 또는 심리적 갈등이나 부적응을 갖도록 하여 괴롭히는 간접적인 공격행동을 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집단따돌림은 공격적인 행동이거나 고

의적인 괴롭힘이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힘의 불균형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대인관계에서 일어난다(Olweus, 1994). Smith(1991)는 집단 따돌림이란 다른 학생들에게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때 가해학생은 한 학생이거나 집단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Smith(1991)는 집단따돌림의 특징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가해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둘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며, 한두 번 정도 일어나는 것은 따돌림이라 불리지 않는다. 셋째, 가해아동은 일반적으로 더 강한 존재로 인식된다. 즉, 집단따돌림은 보통 반복성과 힘의 불균형을 특징으로 하는 공격 행동의 하위 유형이며, 힘에 의한 체계적인 학대라고 할 수 있다(Smith & Brain, 2000).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따돌림에 대한 정의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집단따돌림은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그가 속한 집단 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구본용, 1997). 그러나 피해자가 일대일 폭력을 당하더라도, 가해자는 그 집단에서 피해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제3자들이 가해자들에게 동조를 하게 되며, 결국 피해자는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따돌림의 정의 속에는 개인의 의도로 인해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강진령, 유형근, 2001).

일본에서 일어나는 집단따돌림과 유사한 이지메의 정의를 살펴보면 동일 집단내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우위에 선자가 의식적으로 다른 집합적인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김두현, 2002). 이지메의 특징

은 자기보다 약한 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심리적인 공격을 계속적으로 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가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어야 하고, 일으킨 장소는 학교 내외를 막론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의 집단 따돌림이 약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주고, 지속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집단따돌림의 개념들을 포함하여 조작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려 보고자 한다. 즉 집단따돌림이란 ‘한 개인이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속적으로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받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또한 가해자의 개인적 의도로 인해 일대일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집단따돌림에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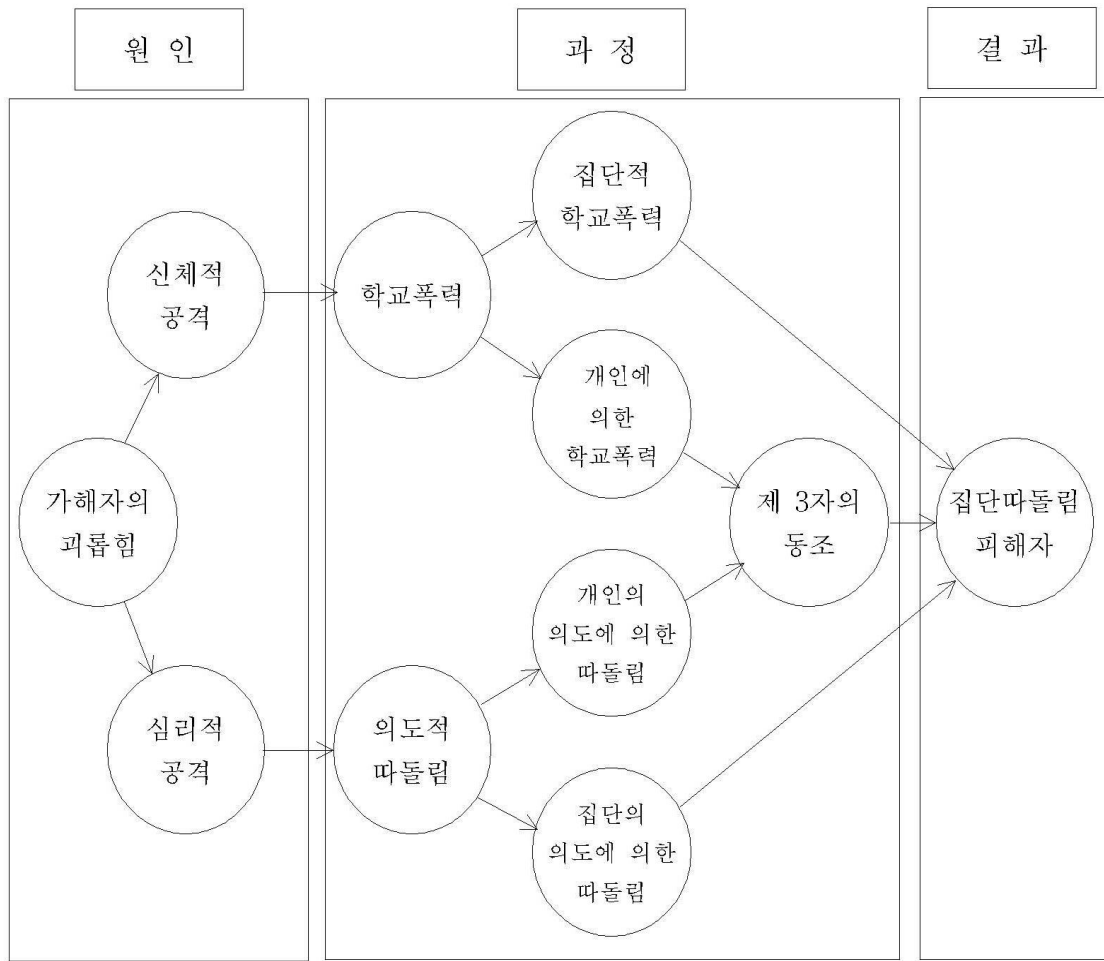


그림 1. 괴롭힘, 집단괴롭힘, 따돌림, 집단따돌림의 관계

2.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특성

1) 성숙도와 집단따돌림의 관계

이춘재(1997)의 연구에서 집단따돌림 피해집단은 신체적 공격은 적은 편이나 자기통제가 부족하고 과시적인 행동 등 미성숙한 면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따돌림 당하는 아이는 사회적 능력이 미숙하여 신뢰할 수 없고 잘난

척하며 이기적이고 남을 무시하며 말과 행동이 이상하고 눈치가 없었다. 그리고 집단따돌림의 피해아동들은 신체적 외모의 부정적 특징에서부터 인지적, 정서적 발달이 미숙하거나 사회적 관계 유지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박경숙 등, 1998; 이춘재, 곽금주, 2000). 김용태, 박한샘(1997)의 연구에 의하면,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의 특성으로 대인관계의 기술부족에 대해 언급했다. 첫째, 사회적 불안으로 타인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관해 지나치게 민감하고 걱정하며, 둘째,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셋째, 대인관계 기술이 부적절하며, 넷째, 대인관계에서 부적절하게 자기를 개방하는 경향이 있고, 다섯째,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여섯째, 교우관계 선택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친구들 간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정을 나누는 능력이 부족하였다(이춘재, 이시재, 곽금주, 1997).

집단따돌림 피해아동들은 집단 내에서의 거부의 대상이 되거나 비인기아동에 해당된다. 거부아동과 인기아동의 차이는 또래집단 내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표현되는데, 또래관계에서 중요시 되는 고려사항은 미성숙, 신체증상, 비행 등이었으며 특히 거부아가 인기아보다 신체증상이 더 많았으며, 비행과 사회적 미성숙 점수가 높았다. Newcomb, Bukoeski 및 Pattee(1993)의 또래지위에 대한 연구를 보면 높은 수준의 공격성, 위축, 낮은 수준의 사회성, 인지능력이 거부아동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특히, 비행과 사회적 미성숙의 경우에 거부아동이 가장 높았다. 또한 비인기아동과 집단따돌림 피해아동도 관련지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

인기 아동은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내적 단서(자신과 타인의 감정, 의도, 욕구, 기대 등)를 해석하는데 무능력하거나 둔감하다(Dodge, & Feldman, 1990).

Schwartz(1993)의 연구를 보면 중학생 따돌림 피해자들은 친구관계 내에서의 괴롭힘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데 비효과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 열악한 친구관계, 소외에 비효과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과 우정을 유지시키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괴롭힘에 취약한 피해자의 사회적 유능감이 잘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집단따돌림의 가해 아동 및 피해 아동이 보이는 공격성은 내재된 분노와 관련이 있는데, 따돌림 가해 학생의 성격특성을 조사한 결과(김석진, 1999)를 보면 '화를 잘 낸다(64.1%)'가 가장 많아 분노를 충동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높았다. 가해아동이 외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과 반대로, 집단따돌림 피해아동들은 주로 분노 억제 방식을 취한다. 또한 분노를 자기 내부로 돌려 억압하면, 우울해지고 무력해진다. 따라서 피해아동들이 주로 호소하는 우울, 무력감은 그들이 따돌림에 의해 높은 분노를 느끼고 있으나 주로 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하게 반응이 표출될지도 모른다. 본 연구에서는 성숙도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심리·사회적 성숙도란 청소년들이 주위환경에 심리적, 사회적으로 반응하고 대처하는 적응력으로 정의한다.

2) 부모-자녀관계와 성숙도의 관계

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는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과정을 통해 계속적으로 경험을 습득하고 영향을 받는 것은 가정환경이다. 가정은 인간이 처음으로 사회관계를 맺는 곳이며 가정을 통하여 사회과정을 경험하면서 성인으로 성장한다. 그러므로 가정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의 장이며 일생동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가정은 언어지식은 물론 정서적 발달과 행동양식, 그리고 가치관 등을 배우고 익히는 곳이다(강봉규, 1998).

Patterson 등(1989)은 특히 가족과 관련된 변인 중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어 그 영향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정에서의 비효율적인 양육이 아동의 무절제한 행동을 초래하고, 결국 비행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비행을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집단따돌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유지하고 자율성 및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부모는 청소년인 자녀에게 친밀하면서도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친밀감은 부모가 수용적이고, 자녀의 개별성을 존중하며, 청소년과의 깊은 유대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녀를 훈육하는 경우에도 강압적인 통제보다는 합리적인 설명과 격려로 청소년의 자율성과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유은희, 1991).

Bumrind(1987)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며 방임적일 때,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무능하며 충동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수많은 경험적인 연구들에서(Maccoby & Martin, 1983) 아동의 심리적 성숙을 위해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와 온화함, 애착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부모의 수용과 지지는 또한 자녀의 유능감을 증진시키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Buri 등, 1987).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촉진적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성 정도를 채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역할 조망과 자아 정체감 형성, 도덕성 발달, 자녀의 인성이나 행동발달 및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소년기시기에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새로운 기술 개발이 요구되기 때문에 청소년기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된다(민하영, 1991). 다음으로 가족의 응집성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성 혹은 심리적 유대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다. Olson(1983)은 가족응집성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로 정의하여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기가 외부와의 접촉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유용하겠다.

먼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살펴보면, Barnes와 Olson(1982)은 기능적인 가족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분명한 의사소통을 성립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며 상호의사소통을 통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다고 하였다. 반면에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며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행동할 수 있는 기술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Gordon(1975)은 부모-자녀 간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장애적인 언어표현을 많이 하고 과거 답습적인 자녀양육방법과 성인 중심적인 인간관으로 자녀를 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자녀간 상호간 의사소통에 공통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부모가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해야함을 강조한다.

Kennedy(1971)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책임감 발달을 위해 부모가 자녀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감정적 지지를 보내며 자녀의 능력과 독창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 스스로도 자기 태도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Foley(1974)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기능적으로 되려면 부모가 개방, 공감, 긍정, 동등성의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는데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촉진적 의사소통이란 부모-자녀간의 개방성, 수용성, 긍정적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바람직한 상호작용방식으로 정의한다.

다음으로 가족의 응집성을 살펴보면, 이는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의존성이나 심리적 유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Olson 등, 1983) 가족의 응집성은 아동의 자아개념과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신지영, 2002). 또한 가족 응집성이 높을 때 가족간의 상호작용이 많고 사회적인 능력을 습득하기가 쉽다. 정상가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응집성이 대체로 높은 가족의 청소년들이 적응력이 더 높았다(전귀연, 1993).

Foley(1974)는 개인적 정체감을 발달시키려는 욕구와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를 가족차원에서 설명했는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이탈과 접근)를 추구하게 된다. 자아를 유지하면서, 가족체계 속으로 들어가서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는 특히 자아정체감이 혼란한 청소년시기에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가족응집성이 높을 때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가 높고 협조와 지지를 구할 수 있으며, 가족이 함께 취미나 여가를 즐긴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단결 및 단란을 중요시하는 가족의 청소년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전귀연, 최보가, 1995).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성은 청소년의 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응집성이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한다.

3) 부모-자녀관계와 집단따돌림의 관계

청소년들은 아동기부터 사회적 기술을 형성하는데, 이는 부모와 친구관계를 통해 형성되어진다. 특히 청소년의 부모와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모와 친구가 어떻게 분리되고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둔다(Meeus, 1989). 그리고 가족과 가족외 관계의 연결점을 조사하였는데, 이들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유지되었고, 부모가 실제적으로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었다. Bell(1985)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자기-개념을 매개로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청소년 자녀가 맺는 친구관계의 질에 대한 예견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예견되는 것과 유사하였다. 그리고 초기 청소년기에 있어서 부모

가 자녀를 존중하는 것과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친구관계에 긍정적으로 관련되었다. 또한 Bell(1988)의 연구에서, 특히 여학생들은 친구관계에서 경험하는 결합정도와 가족관계속에서 경험하는 결합정도 사이에 강력한 유사점이 발견되었다. 이들 결과를 종합해볼 때 부모-자녀관계의 긍정적인 질은 직접적으로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에 친구관계의 부정적인 면을 연구한 논문에서는 부모-자녀관계가 비정상적인 친구관계와 관련되었다(Snyder, 1986). 그리고 친구관계를 맺는데 극단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높은 통제감과 엄격함, 서투른 행동과 관련될지도 모른다(Fuligni, Eccles, 1993). 이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 보다 부정적이다(Conger, 1992). 그리고 보다 정서적인 문제들을 경험하고(Kandel, Davies, 1982) 친구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며(Dekovic, Meeus, 1995) 결국 이들은 친구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로써 부모-자녀관계와 집단따돌림과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다.

3. 연구목적 및 가설

1) 연구목적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집단따돌림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미미하다. 즉 이제까지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두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피해자의 개인내적 특성 분석을 통한 접근과 가해자의 행위나 의도 분석을 통한 접근이 그것이다(구본용, 1997). 또한 실태분석에 그치고 있다(김용태,

박한샘,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자녀 관계, 자녀의 심리·사회적 성숙도가 집단따돌림피해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집단따돌림 피해정도가 심각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가설

1. 부모-자녀관계, 심리·사회적 성숙도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피해 정도가 낮아질 것이다.
2. 심리·사회적 성숙도가 부모-자녀관계와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를 매개할 것이다. 즉, 간접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5개 학교, 경기도 3개 학교, 경상도에 2개 학교, 인터넷 카페회원을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같은 번호로 일관되게 설문하거나, 결측치가 있는 84부를 제외하고 581명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학년을 고려하였다.

2. 평가도구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부모-자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가족응집성 문항(10문항)과 의사소통 문항(19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자녀의 성숙도를 살펴보기 위한 67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15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총 111문항이었다.

1) 촉진적 의사소통 척도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마정건(1988)이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검사’를 사용하여 4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Carkhuff(1969)의 의사소통 척도를 기초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게 49개의 문항을 적용하는 것이 다소 길다고 판단되어, 이상길(2002)의 연구에서 시대적 변화상을 감안하여 여고생에게 적합하도록 전문가들에게 내용타당도를 의뢰하여 축소시킨 19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19개의 문항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단지 2개의 문항만이 고등학생에게 해당하는 질문이었으므로, ‘중학생시절’에 대해 묻는 질문 2가지 문항을 ‘예전보다’로 바꾸어 설문하였다.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검사’는 질문지형 검사로서 지각된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문항은 구체적인 대화상황에서 자녀의 언어표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어머니가 보일 수 있는 반응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채점은 수준에 따라 1점에서 5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범수의 범위는 최소 19점으로부터 최고 95점으로, 1점과 2점은 비촉진 수준, 3점은 기본촉진 수준, 4점과 5점은 심화촉진 수준을 나타내며 점수의 합이 클수록 촉진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길(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의 Cronbach's alpha는 촉진적 의사소통 하위변인별로 개방성은 .689이고, 긍정적 존중은 .640이고, 수용성은 .687이었고, 전체적으로 .832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개방성 .70이고, 긍정적 존중은 .67, 수용성은 .74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8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 가족 응집성 척도

응집성은 최용배(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그것은 Olson과 그의 동료들이(1982) 제작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FACES II :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것이다. FACES II는 모두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가족의 응집성에 해당하는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최저 10점으로부터 최고 50점으로 점수의 합이 클수록 응집성이 높다. 이상길(2002)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는 .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85로 나타났다.

3) 심리· 사회적 성숙도 척도

박정희(2002)가 개발하여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이는 인간의 성숙을 심리적 성숙과 사회적 성숙을 통합한 개념으로 가정하였다. 심리성숙은 최근 정신병리학과 발달심리학에서 청소년들의 심리성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을 검토하였고, 사회성숙은 기존의 사회성숙도 척도와 사회적 행동 검사도구에 구성된 요인들을 분석하여 심리·사회 성숙도 검사 도구 하위요인들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 의해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고, 문항평균과 표준오차를 고려하여 선정된 문항을 중고등학생들에게 예비검사로 실시하였다. 또한 수거된 검사지를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별 문항이 적절한가를 재검토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자존감, 자기효능감, 정서적 안정감, 성정체감, 자아정체감, 사회적 유능감, 의사소통능력, 학교생활적응력, 대인관계친화력, 자기관리능

력이 있다. 모두 총 67문항이 최종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박정희(2002)의 연구에서 67개의 문항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3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사회 성숙의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자존감(6문항) .85, 자기 효능감(6문항) .81, 정서적 안정감(8문항) .67, 성정체감(5문항) .62, 자아정체감(5문항) .60, 사회적 유능감(7문항) .85, 의사소통능력(7문항) .79, 학교생활적응력(8문항) .83, 대인관계친화력(10문항) .86, 자기관리능력(5문항) .6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67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7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자존감 .81, 자기효능감 .78, 정서적안정감 .67, 성정체감 .52, 자아정체감 .48, 사회적유능감 .67, 의사소통능력 .72, 학교생활적응력 .80, 대인관계친화력 .86, 자기관리능력 .60으로 나타났다. 역채점 문항은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20번, 25번 문항이다. 문항의 점수는 최저 67점으로부터 최고 335점으로 점수의 합이 작을수록 성숙도 점수가 높다.

4) 집단따돌림 척도

본 연구에서는 최은숙(2000)이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최은숙(1999)이 제작한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행동 문항과 서울 시내 초, 중, 고등학교 각 1, 2 학급씩, 총 150명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행위에 대한 서술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통적으로 진술된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행위들을 일차적으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그 선정된 문항을 한국교육개발원(박경숙 등, 1998), 왕따 리포트(우리교육, 1999), 청소년 대화의 광장(구본용, 1997), 서울시 교육청(1999)의 조사 결과에 의해 파악된 청소년들이 경

험한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행위들을 그 분포, 비율 순서에서 전체 25% 이상 경험한 것으로 진술된 항목들 중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추출하였다. 또한 공통되는 항목들을 대표되는 3가지 유형별(소외형, 언어형, 신체형)로 각각 5문항씩 분포시켜 '가해항목' 15문항, '피해문항' 15문항을 선정하여 구성한 도구이다. 각 문항에서 '전혀 없었다'는 0점 처리되고, '있었다'에서 '한번 또는 두 번'은 1점, '가끔'은 2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3점, '일주일에 여러 번'은 4점으로 배점하여 범수 범위는 최저 0점으로부터 최고 60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해, 피해를 경험한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최은숙(2000)의 연구에서 집단따돌림 피해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8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남녀 총 665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성실하고 신뢰성 있는 설문지 응답을 위해서, 담당선생님께 자세한 설명을 상세히 학생들에게 설명해주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다. 전체 답안작성 소요시간은 40분 내외였고, 유효한 자료 581부를 가지고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방법

첫째, 검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둘째, 성별, 학교 급별에 따른 촉진적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성, 심리·사회적 성숙,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집단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심리·사회적 성숙도의 하위요인과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관계(Pearson's correlation)를 알아보았다.

넷째, 심리·사회적 성숙도의 하위요인이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의 step-wise 방식을 적용하였다.

다섯째, 자녀의 성숙도를 매개변인으로 한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AMOS 5.0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집단 분류 결과

전체 연구대상자 581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내용	구분	N(명)	백분율
성별	남	301	51.8
	여	280	48.2
학교급별	중학생	389	67.0
	고등학생	192	33.0
	계	581	100.0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자는 51.8%(301명)를 차지하였고, 여자는 48.2%(280명)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보면, 중학생은 67.0%(389명)를 차지하였고, 고등학생은 33.0%(192명)였다.

2. 성별, 중·고등학교에 따른 집단간 차이검증

성별, 중·고등학교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변인	남학생	여학생	t
	n = 301	n = 280	
자존감	19.37 (4.18)	19.24 (4.39)	.355
자기효능감	20.10 (4.06)	18.72 (4.34)	3.963***
정서적 안정성	26.01 (5.30)	23.46 (5.13)	5.880***
성정체감	21.28 (3.28)	20.08 (3.55)	4.249***
자아정체감	17.87 (2.70)	17.39 (3.20)	1.952
사회적 유능감	23.13 (4.94)	23.16 (5.45)	-.088
의사소통	25.59 (4.20)	26.54 (4.25)	-2.693**
학교 적응성	26.83 (5.69)	26.49 (6.14)	.695
대인관계 친화	31.13 (7.66)	31.20 (8.00)	-.109
자기 관리	14.84 (3.40)	14.42 (3.59)	1.434
개방성	17.27 (4.70)	16.63 (4.56)	1.664
긍정적 존중감	19.61 (5.05)	19.24 (4.91)	.890
수용성	21.09 (5.68)	22.07 (5.20)	-2.168*
따돌림 피해정도	9.60 (8.89)	7.65 (7.83)	2.804**
가족의 응집성	35.17 (6.38)	34.01 (7.28)	2.047*

* $p < .05$, ** $p < .01$, *** $p < .001$

()는 표준편차

t검증 결과를 보면,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들로는 자기효능감, 정서적 안정성, 성정체감, 의사소통, 수용성, 집단따돌림 피해정도, 가족의 응집성이 있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은 변인들

은 자기효능감, 정서적 안정성, 성정체감, 가족의 응집성, 집단따돌림 피해 정도였다. 특히, 자기효능감, 정서적 안정성, 성정체감에서 높은 점수차를 보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변인은 의사소통과 수용성이었다.

표 3.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학교급별 차이검증

변인	중학생	고등학생	t
	n = 389	n = 192	
자존감	19.27(4.10)	19.37 (4.63)	-0.247
자기효능감	19.38 (4.39)	19.54 (3.97)	-0.429
정서적 안정성	25.18 (5.43)	23.99 (5.16)	2.519*
성정체감	21.04 (3.35)	20.02 (3.60)	3.388**
자아정체감	17.56 (2.86)	17.80 (3.15)	-0.936
사회적 유능감	23.25 (5.15)	22.94 (5.28)	0.675
의사소통	26.01 (4.23)	26.14 (4.29)	-0.341
학교 적응성	27.07 (5.98)	25.84 (5.69)	2.381*
대인관계 친화	31.15 (7.95)	31.20 (7.56)	-0.067
자기 관리	14.57 (3.61)	14.78 (3.25)	-0.699
개방성	16.97 (4.67)	16.94 (4.60)	0.084
긍정적 존중감	19.40 (5.08)	19.50 (4.79)	-0.225
수용성	21.74 (5.46)	21.20 (5.49)	1.119
따돌림 피해정도	8.85 (8.58)	8.27 (8.15)	0.775
가족의 응집성	35.03 (6.69)	33.77 (7.10)	2.085*

*p<.05, **p<.01

()는 표준편차

t검증 결과를 보면, 학교급별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들로는 정서적 안정성, 성정체감, 학교 적응력, 가족의 응집성이 있었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은 변인들은 정서적 안정성, 성정체감, 학

교 적응력, 가족의 응집성이었고,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3.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와 각 변인들과의 관계

촉진적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성, 심리·사회적 성숙도의 하위요인들과 집단따돌림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4.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와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종속 변인	독립 변인	독립변인 하위요인	R	
집단따돌림 피해정도	촉진적 의사소통	수용성	-.192***	
		긍정적 존중	-.142**	
		개방성	-.134**	
	가족의 응집성		-.174***	
	심리·사회적 성숙도		사회적 유능감	-.316***
			자존감	-.190***
			의사소통	-.171***
			자아정체감	-.169***
			정서적 안정감	-.160***
			대인관계 친화력	-.158***
			성정체감	-.137**
			학교 적응력	-.136**
			자기효능감	-.124**
			자기관리	-.086*

*p<.05, **p<.01, ***p<.001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와 각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는 사회적 유능감($r=-.316, p<.001$), 수용성($r=-.192, p<.001$), 자존감($r=-.190, p<.001$), 가족의 응집성($r=-.174, p<.001$), 의사소통($r=-.171, p<.001$), 자아정체감($r=-.169, p<.001$), 정서적 안정감($r=-.160, p<.001$), 대인관계 친화력($r=-.158, p<.001$), 긍정적 존중($r=-.142, p<.001$), 성정체감($r=-.137, p<.001$), 학교 적응력($r=-.136, p<.001$), 개방성($r=-.134, p<.001$), 자기효능감($r=-.124, p<.001$), 자기관리($r=-.086, p<.001$)순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4. 부모-자녀관계 하위요인들과 심리· 사회적 성숙도와의 관계

부모-자녀관계의 하위요인들과 심리· 사회적 성숙도와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5. 부모-자녀관계의 하위요인들과 심리· 사회적 성숙도의 상관관계

	개방성	긍정존중	수용성	가족응집	성숙도
개방성	1.000				
긍정존중	.601**	1.000			
수용성	.675**	.628**	1.000		
가족응집	.332**	.233**	.301**	1.000	
성숙도	.207**	.196**	.217**	.456**	1.000

* $p<.05$, ** $p<.01$, *** $p<.001$

촉진적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인 개방성($r=.207, p<.01$), 긍정적 존중($r=.196, p<.01$), 수용성($r=.217, p<.01$)은 모두 성숙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가족의 응집성은 $r=.456, p<.01$ 로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가장 큰 정적 상관을 보였다.

5.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상관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촉진적 의사소통과 가족응집, 심리·사회적 성숙도의 하위요인들이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를 종속변인으로, 부모-자녀관계와 성숙도를 예언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

종속변인	예언변인	β	t	R^2	F
	(Constant)		9.955		
집단따돌림 피해정도	자존감	.012	.220	.151	7.196***
	자기효능	.037	.665		
	정서안정	-.128	-3.182**		
	성정체감	-.049	-1.153		
	자아정체	-.011	-.215		
	사회유능	-.324	-5.710***		
	의사소통	-.046	-.937		
	학교적응	.041	.787		
	대인친화	.056	1.086		
	자기관리	.039	.793		
	개방성	.043	.761		
	긍정존중	-.004	-.070		
	수용성	-.156	-2.709**		
	가족응집	-.067	-1.444		

* $p<.05$, ** $p<.01$, *** $p<.001$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촉진적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성, 심리·사회적 성숙도의 하위요인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모델은 유의도 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였고, $F = 7.196$, $p < .001$,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를 약 15% 설명하였다. 14개의 예언변인 중에서는 심리·사회적 성숙도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유능성의 예언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beta = -.324$, 표준화된 회귀계수에 대한 t검증을 했을 때에도 유의도 수준 .001에서 그 영향력이 유의미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촉진적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인 수용성($\beta = -.156$, $p < .01$)이 높았고, 정서적 안정감($\beta = -.128$, $p < .01$)순이었다.

6. 심리·사회적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상관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촉진적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의 하위요인들이 심리·사회적 성숙도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심리·사회적 성숙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자녀관계'의 하위요인들을 예언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

종속변인	예언변인	β	t	R ²	F
	(Constant)		22.433		
심리·사회적 성숙도	개방성	-.013	-.239	.22	40.082***
	긍정존중	.072	1.453		
	수용성	.051	.938		
	가족응집	.428	10.889***		

*** p<.001

'심리·사회적 성숙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자녀관계'의 하위요인들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모델은 유의도 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였고, F= 40.082, p<.001, 심리·사회적 성숙도를 약 22% 설명하였다. 4개의 예언변인 중에서는 가족의 응집성만 유의미하였다. 가족의 응집성은 $\beta=.428$, p<.001이었다.

7.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관계의 하위요인들

상관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부모-자녀관계의 하위요인들이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자녀관계'의 하위요인들을 예언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

종속변인	예언변인	β	t	R^2	F
	(Constant)		9.523		
집단따돌림 피해정도	개방성	-.131	-3.019	.052	7.975***
	긍정존중	.034	.572		
	수용성	-.035	-.642*		
	가족응집	-.153	-2.563**		

* $p < .05$, ** $p < .01$, *** $p < .001$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자녀관계'의 하위요인들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모델은 유의도 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였고, $F = 7.975$ $p < .001$,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를 약 5% 설명하였다. 4개의 예언변인 중에서는 가족의 응집성($\beta = -.153$, $p < .01$)과 수용성($\beta = -.035$, $p < .05$)순으로 유의미하였다.

8.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성숙도의 하위요인

상관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심리· 사회적 성숙도의 하위요인들이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심리· 사회적 성숙도'의 하위요인들을 예언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

종속변인	예언변인	β	t	R ²	F
	(Constant)				
	자존감	-.019	-.360		
	자기효능	.034	.620		
집단따돌림	정서안정	-.141	-3.520***	.128	8.362***
피해정도	성정체감	-.047	-1.100		
	자아정체	-.021	-.427		
	사회유능	-.317	-5.547***		
	의사소통	-.050	-1.011		
	학교적응	.024	.466		
	대인친화	.040	.786		
	자기관리	.035	.711		

*p<.05, **p<.01, ***p<.001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심리· 사회적 성숙도'의 하위요인들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모델은 유

의도 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였고, $F = 8.362$, $p < .001$,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를 약 13% 설명하였다. 10개의 예언변인 중에서는 사회유능($\beta = -.317$, $p < .001$), 정서안정($\beta = -.141$, $p < .001$) 순으로 유의미하였다.

9. 경로분석

앞에서 차이검증과 상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집단따돌림, 촉진적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성,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여러 변인간의 관계를 동시에 설명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고 변인간의 관계가 전체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하는지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단따돌림, 촉진적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성,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경로 모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의 부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비교적합지수(CFI)와 Akaike information criterion를 함께 사용하였다. 모델 1은 심리·사회적 성숙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주는 간접효과와 부모-자녀관계가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에 직접적으로 주는 효과 모두를 고려한 모델이다. 그러나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 $p < .05$ 인 것은 촉진적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성이 심리·사회적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심리·사회적 성숙도가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에 미치는 영향, 촉진적인 의사소통이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따라서 가족의 응집성이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족의 응집성을 제외한 경로모델을 살펴보았다(모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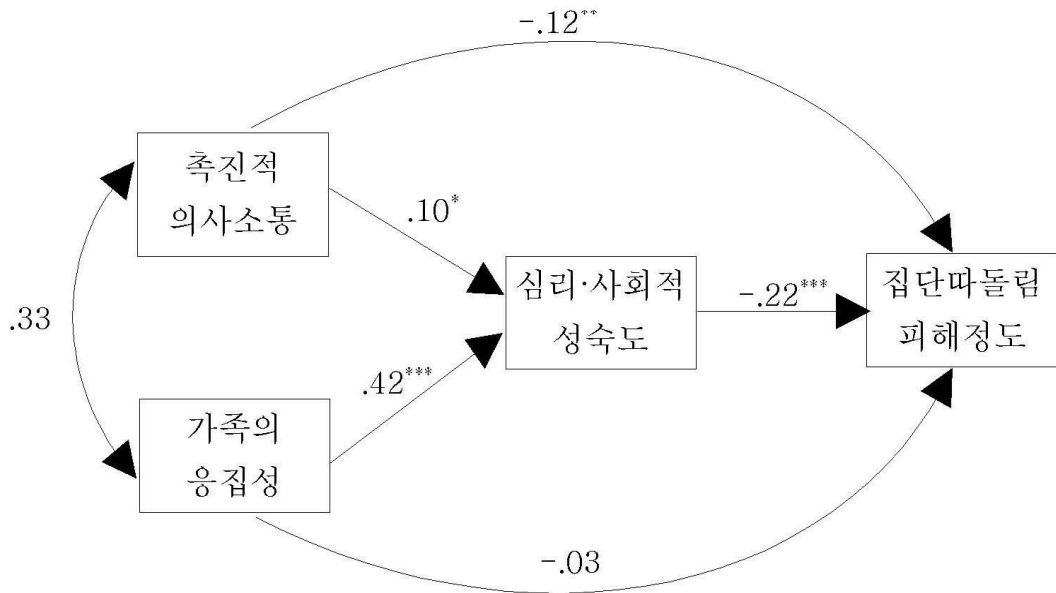


그림 2.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에 대한 모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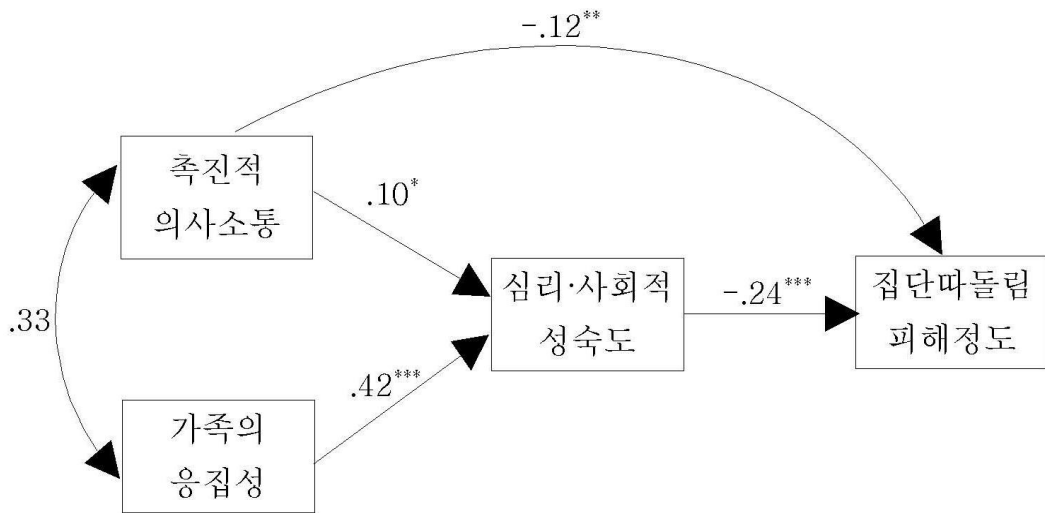


그림 3.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에 대한 모델 2

모델 1(그림 2)에서는 가족의 응집성이 유의미하지 않았고, 모델 2(그림 3)가 모델 1에 비해 더 간명하고, 모델 2의 χ^2 값이 .530으로 모델 1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설정된 모든 경로계수들이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AIC

가 더 작으므로 모델 2가 더 간명하고 적합한 모델이다. 비교적합지수(CFI)는 0.9이상이면 우수한 모델임을 나타낸다.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는 모델들간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0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상당히 좋으며, 높은 간명도를 가진 모델임을 의미한다.

표 10. 집단따돌림에 대한 모델 1과 모델 2의 비교

모델	χ^2	df	AIC	CFI
모델1	.000	0	20.000	1.000
모델2	.530	1	18.530	1.000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a

CFI = Comparative Fit Index

표 11. 모델 1과 모델 2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모델 1	모델 2
1. 촉진대화->성숙도	.10*	.10*
2. 가족응집->성숙도	.42***	.42***
3. 성숙도->집단따돌림	-.22***	-.24***
4. 촉진대화->집단따돌림	-.12**	-.12**
5. 가족응집->집단따돌림	-.03	

* p<.05, ** p<.01, *** p<.001

모델 2의 계별 경로계수의 크기를 살펴보면, 촉진적 의사소통($\beta=.10$, $p<.05$)과 가족의 응집성($\beta=.42$, $p<.001$)은 심리·사회적 성숙도에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심리·사회적 성숙도($\beta = -.24, p < .001$)와 촉진적 의사소통($\beta = -.12, p < .01$)은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집단따돌림 피해정도가 낮아질 것이고, 가족내 응집성의 여부는 직접적으로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가족의 응집성이 자녀의 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따돌림현상과 관련된다.

V. 논의 및 결론

집단따돌림 현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현상이지만 최근 몇 년간에 그 피해정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각해지고, 그 범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집단따돌림 현상은 단지 피해자, 가해자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다. 또한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들은 피해당하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집단따돌림 피해는 전 학년에 걸쳐 매우 지속적인 결과를 보여주며(Epstein, 1990) 인생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적응적인 결과를 수반한다(Hodges, Malone, & Perry, 1997). 그럼에도 많은 선행연구들은 집단따돌림 실태분석(김용태, 박한샘, 1997)과 피해자의 개인내적 특성 분석을 통한 접근, 가해자의 행위나 의도 분석을 통한 접근에 그치고 있다(구본용,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자녀관계, 자녀의 심리·사회적 성숙도가 집단따돌림 피해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자녀관계가 친구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 되었고(Bell, 1985)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받는 자녀의 성숙도는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박경숙 등, 1998; 이춘재, 곽금주, 2000). 뿐만 아니라 미성숙함, 즉 대인관계에서 미숙하고 신뢰할 수 없고, 말과 행동이 이상하고 눈치가 없을 때 집단따돌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자녀관계와 성숙도가 집단따돌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

만, 성숙도가 부모-자녀관계속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성숙도를 매개로 집단따돌림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와 각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본 상관분석에서는 사회적 유능감, 수용성, 자존감, 가족의 응집성, 의사소통, 자아정체감, 정서적 안정감, 대인관계 친화력, 긍정적 존중, 성정체감, 학교 적응력, 개방성, 자기효능감, 자기관리능력에서 모두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부모-자녀관계(촉진적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성)가 긍정적일수록 집단따돌림 피해정도가 낮을 것이라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Bell, 1985). 또한 자녀의 성숙도가 낮을 때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박경숙 등, 1998; 이춘재, 박금주, 2000). 즉 부모가 자녀에게 수용적,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할 때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친밀한 가족 유대감속에서 자녀가 성장할수록 집단따돌림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자존감 등이 높을수록 좋은 친구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크고, 집단따돌림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적다는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즉 자녀와 부모가 지지적인 관계일 경우, 자녀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쉽게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설령 상처를 경험해도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자녀들에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부모-자녀관계가 집단따돌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자녀의 심리·사회적 성숙도는 부모-자녀관계의 하위요인들(개방성, 수용성, 긍정적 존중, 가족의 응집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수용과 지지가 자녀의 유능감을 증진시키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Buri 등, 1987)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설명력을 알아본 결과 부모-자녀관계가 심리·사회적 성숙도를 22% 설명하였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개방적, 수용적이고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대화방식을 사용할 때 자녀는 보다 심리,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적응력을 보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의 응집성(유대감)은 자녀가 바람직하게 성숙하도록 돕는다.

셋째,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를 예언하는 심리·사회적 성숙도 하위요인들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심리·사회적 성숙도의 하위요인들이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를 약 13% 설명했다. 그리고 10개의 예언변인 중에서는 사회유능($\beta = -.317, p < .001$), 정서안정($\beta = -.141, p < .001$) 순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아동이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정서가 안정되어 있을수록 친구들로부터 따돌림피해를 적게 입는다. 자신이 사회적으로 유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친구관계에서 따돌림이라는 부정적인 경험을 막아 주는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정서가 안정되어 있을 경우에도 친구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차분하고 융통성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넷째,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를 예언하는 부모-자녀관계 하위요인들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중다회귀분석에서는 부모-자녀관계의 하위요인들이 집단따돌림 피해정도를 약 5% 설명하였다. 그리고 가족의 응집성($\beta = -.153, p < .01$), 수용성($\beta = -.035, p < .05$) 순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가족의 유대감이 높고, 부모가 자녀와 수용적으로 대화할 때 집단따돌림 피해는 감소

한다. 이는 모든 하위요인들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한 결과와 다르다. 왜냐하면 성숙도의 하위요인들을 제외시키고 부모-자녀관계와 집단 따돌림과의 관계만 일부 살펴보았기 때문에 차이를 보인 것이다.

다섯째, 심리·사회적 성숙도를 매개변인으로 한 경로분석에서는 모든 직접, 간접효과를 고려한 모델 1과 회귀분석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가족의 응집성이 집단따돌림에 주는 직접효과를 제외한 모델 2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모델 2가 모델 1에 비해 더 간명하고, 모든 경로계수들이 .05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모델 2가 χ^2 값이 .53으로 모델 1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AIC가 더 작으므로 모델 2가 더 간명하고 적합한 모델이다. 모델 2의 개별 경로계수의 크기를 살펴보면 촉진적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성이 심리·사회적 성숙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심리·사회적 성숙도($\beta = -.24, p < .001$)와 촉진적 의사소통($\beta = -.12, p < .01$)은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성숙도는 높아지고, 자녀의 성숙도와 촉진적 의사소통은 직접적으로 따돌림을 예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의 응집성은 자녀의 성숙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성별, 학교급별(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알아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변인들로는 자기효능감, 정서적안정감, 성정체감, 가족의 응집성,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였다. 특히 집단따돌림 피해정도에 대한 성차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는 박경숙 등(1998)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전반적인 성숙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체 성숙도가 높다(박정희, 2002)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

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변인들로는 정서적 안정성, 성정체감, 학교 적응력, 가족의 응집성이 있었다. 이는 학교급별에 따른 성숙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박정희, 2002)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내린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성숙과 심리적 변화, 부모로부터의 독립하는 청소년기(김충기, 1990)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집단따돌림 현상에 대한 경로를 살펴보았다. 그 연구결과에서 부모-자녀관계가 집단따돌림에 주는 직접효과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성숙도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예언변인들의 설명력은 15%였다. 이를 통해 집단따돌림 치료에 피해자와 그 가족간의 의사소통과 가족내 응집성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집단따돌림 문제가 단지 단순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의 연구가 실태분석(김용태, 박한샘, 1997)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개인내적 특성 분석(구본용, 1997)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크다. 집단따돌림 피해자들을 위한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 가족치료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피해자 개인의 성숙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가정환경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그 외의 지지그룹이나 소속된 집단과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간과하였다. 청소년기는 가정환경 뿐 아니라 그 외의 종교그룹이나 써클 활동, 형제관계 등을 고려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직접적인 면접과 상담을 하지 않고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단체로 사용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조사대상자들이 대충 대답하려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집단따돌림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학생들을 구분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봉규(1998). 교육심리학. 서울: 형성출판사.
- 강진령, 유형근(2001). 집단괴롭힘. 학지사.
- 김두현(2002). 일본의 학교폭력 실태와 그 예방대책. 청소년지도학연구 제2권 제2호. 한국청소년지도학회.
- 김문정(1997). 유아의 사회 성숙도와 인기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석진(1999). 초등학교 집단따돌림 가해실태와 관련요인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영(1996).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태, 박한샘(1997). 청소년의 친구 따돌림의 실태.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당하는 아이들. 청소년대화의 광장.
- 김충기(1990). 생활지도와 상담. 서울: 교육교학사.
- 구본용 (1997). 청소년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청소년대화의 광장.
- 마정건(1988).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 특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력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숙 손희권, 송혜경 (1998). 학생의 왕따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개발원.
- 박성수(1993). 청소년의 삶, 고민과 대화(93-1),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 보
고서. 재단법인 청소년대화의 광장.
- 박정희(2002). 부모의 가정교육방향 및 양육행동이 자녀의 심리·사회성숙
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변영인(1999).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가족적응성 및 가족응집성과 자
녀의 학업성취.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지영(2002).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및 가족응집력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따집내 조기입학 초등생줄어(2004, 3, 24). 한국일보. '왕따' 피해자, 가
해자 자살률 2.9배(2001, 1, 11). 한겨레신문.
- 유은희(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
만족도,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은따 고민 여고생 투신자살(2002, 5, 1). 한국일보.
- 이상길(2002). 어머니와의 촉진적 의사소통, 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 어머
니 취업여부에 대한 만족도가 여고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
치는 영향. 건국대학원 교육학과 박사논문.
- 이춘재, 이시재, 곽금주 (1997).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부천시.
- 이춘재, 곽금주 (2000).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실태와 특성. 서울: 집문당.
- 전귀연(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력 및 가족체계유형

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전귀연, 최보가(1995). 가족응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가족 학회지, 2제 3권, 제 1호, pp. 83-98.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왕따조사(2001, 9, 23). 한계레신문.

집단따돌림 대상 왕따보험나왔다(2001, 2, 15). 한국일보.

청소년보호위원회(2003).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프로그램 모형 개발. p. 12.

최은숙(2000).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개발원(편)(1998). 학생의 왕따(집단따돌림 및 괴롭힘)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98-19.

한국청소년상담원(편)(1999). 청소년상담의 기초.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 상담직 자원봉사자 교재.

Allen, V. L. (1965). Situational factors in conformity. In L. Berkowits(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 2, 152-153.

Barn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f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Baumrind, D. (1987). Child care practice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o-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pp. 75.

- Bell, N. J., Avery, A. W., Jenkins, D., Feld, J. & Schoenrock, C. J. (1985). Family relationships and social competence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109–119.
- Bell L. G., Cornwell, C. S. & Bell, D. C. (1988). Peer relationships of adolescent daughters: A reflection of family relationship patterns. *Family Relations*, 37, 171–174.
- Buri J. R., Kirchner, P. A. & Walsh, J. M. (1987). Familial correlates of self-esteem in young American adul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7, 583–588.
- Carkhuff, R. R. (1969). *Helping and human relationship*.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Conger, R. D.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Dekovic M. & Meeus, W. (1995). Emotional problems in adolescence. In *Childhood and youth i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Transitions and coping strategies of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Dodge, K. A., & Feldman, E. (1990). Issues in social cognition and sociometric status, In Steven R. Asher & John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Epstein, A. M. (1990). Stability of victimizat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Florida Atlantic University, Boca Raton.
- Foley, V. D. (1974). *An Introduction to family theory*, New York: Grune & Steatton.
- Fuligni, A. J. & Eccles, J. S. (1993). Perceived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early adolescents' orientation toward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22–632.
- Gordon, Tomas. (1975).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The Tested new way to raise responsible children* New American Library.
- Hodges, V. E., Malone, M. J., & Perry, D. G. (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032–1039.
- Kandel, D. B. & Davies, M. (1982). Epidemiology of depressive moods in adolescence. An empirical stud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9, 1205–1212.
- Kennedy, C. E. (1971). Patterns of parent–student Communica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63–513.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Mussen, P. H. (Ed.). New York: Wiley, pp. 1–101.
- Meeus, W. (1989). Parental and peer support in adolescence. In The social worlds of adolescents, Hurrelmann, K. and Engel, U. (Eds). New York: de Gruyter, pp. 167–183.
- Newcomb, A. F., Bukowski, W.M., & Pattee, L.(1993). Children's Peer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of Popular, Rejected, Neglected, Controversial, and Average Sociometric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13(1), 99–128.
- Olson,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 69–83.
- Olweus, D. (1984). Aggressors and their victims: bullying at school. In N. Frude & H. Gault (Eds.), Disruptive behavior in schools. New York: John Wiley.
- Olweus, D. (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Pepler & K. Rube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J: Erlbaum.

- Olweus, D. (1993). *Bullying in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Blackwell.
- Olweus, D. (1994). Annotation : bullying at school :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5–1190.
- Pardeck, J. A, & Pardeck, J. T. (1990) Family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 autonomy, *Adolescence*, 25, 98, 311–319.
- Patterson, G. R, Debarshe, B. D.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 Schwartz, K., Dodge, K. A., & Coie, J.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 Smith, P. K. (1991). The silent nightmare: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chool peer groups. *Bulletin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4.
- Smith, P. K., & Brain, P. (2000). Bullying in Schools: Lessons from two decades of Research. *Aggressive Behavior*, 26, 1–9.
- Snyder, J., Dishion, T. J. & Patterson, G. R., (1986).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associating with deviant peers during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6. 29–43.

ABSTRACT

The Relationships among the bullied victim's severity,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psycho-social maturity
of the adolescents

Ji - Young, You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Victimization or bullying means that a student is being bullied and exposed repeatedly over time to the perpetra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psycho-social maturity would influence directly or indirectly on severity of victimization.

The two hypotheses were genera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as follows :

First, there will be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arent-child relation and psycho-social maturity.

Second, psycho-social maturity will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and severity of bullied victim.

Four kinds of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five hundred and

eighty one middle & high school in Seoul city, Kyonggy & Gyongsang provinces. The five hundred and eighty one subject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garding material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by using SPSS 10.0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the correlations among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psycho-social maturity sub-factors, and the severity of bulled victim were calculated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child sub-factors and psycho-social maturity sub-factors were, the lower the severity the bulled victim suffered.

Second, there was positive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parent-child subfactor and psycho-social maturity variables.

Third, the psycho-social maturity subfactor buffered the impact of bulled victim($F = 40.082, P < .001$). In general, the psycho-social maturity factor was able to explain 22% of the severity of bulled victim.

Fourth, only family cohesion and acceptance in parent-child's subfactor variables were able to reduce the severity of bulled victim.

Fifth, the psycho-social maturity of the adolescents functioned as a mediating variable the betwee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the severity of bulled victim. Except family cohesion, all the variables were able to predict the severity of bulled victim directly or indirectly. That is,

the facilitative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n conjunction with psycho-social maturity of the adolescents were able to reduce the severity of the bullied victim directly or indirectly.

사회적응과 가족관계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관계, 사회적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평소 자신에 대해 솔직하고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항에는 옳고 그름이 없고, 본인의 생각과 행동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통계처리되어 오직 설문조사 및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소중한 연구자료로 사용되기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9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채규만

연구자 유지영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

1. 당신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당신이 다니는 학교는?

① 남녀공학중 ()

② 남중 또는 여중 ()

③ 실업계고 ()

④ 인문계고 ()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한 곳에 체크를 해주세요. 솔직하게 한 문장도 빠짐없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 문	항상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내가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2 나는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나에게는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자부한다					
4 전반적으로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5 나는 좋은 성품과 건전한 매너를 가지고 있다					
6 내 주변에는 나를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많다					
7 나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스스럼없게 할 수 있다					
8 새로운 일이 너무 어려우면 배워서라도 해결한다					
9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한다					
10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 내는 편이다					
11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내가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12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 잡는다					
13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울화가 치밀면 견잡을 수가 없다					
14 기분이 나쁘면 엉뚱한 것에 화풀이를 한다					
15 스트레스나 화가 나면 충동적으로 낭비하거나 자꾸 먹는다					
16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17 이유없이 불안하고 나쁜 생각이 난다					
18 욕구와 본능을 잘 조절하는 편이다					

19	심신이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흥분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한다				
20	일을 하고나서도 몇 번씩이나 다시 확인해야 마음이 놓인다				
21	나는 지금의 태어난 성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22	나는 내 자신의 성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3	여성은 여성으로서,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24	자신의 성을 바꾸려고 수술이나 약물요법치료를 생각해 본 일이 없다				
25	어려서부터 이성(남성 또는 여성)의 역할을 많이 하여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다				
26	나는 나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27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 주저없이 '싫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한다				
28	나는 남의 이목을 끌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				
29	미래의 나의 모습은 지금의 나의 모습보다 발전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30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31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도와줄 친구가 많다				
32	내 주변에는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많다				
33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잘 만든다				
34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없다				
35	내가 속하거나 관여하는 집단에서는 나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36	모임에 내가 불참하면 동료(친구)들이 섭섭해 한다				

37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38	대화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39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적절하게 바라본다				
40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노력한다				
41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말의 속도가 적당하다				
42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43	말을 하면서 적절하게 제스처를 사용한다				
44	이야기를 나눈 사람을 잘 기억한다				
45	학교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잘 수행하고 있다				
46	나는 교칙을 위반한 적이 거의 없다				
47	학교에서 해오라는 숙제나 준비물을 잘 갖춘다				
48	특별활동 시간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49	학교 행사에 흥미를 갖고 참여한다				
50	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51	나는 선생님과 자유로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52	학교를 포함한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 이용에서 지켜야 할 질서는 꼭 지킨다				
53	사귀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귀다				
54	난 이성친구들만 있는 곳도 피하지 않는다				
55	전학이나 이사를 가도 주변 사람을 금방 사귀다				
56	나는 때때로 낯선 사람들을 서로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한다				
57	파티나 친목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다				

58	나는 어떤 사람이 보고 싶으면 내가 먼저 전화하거나 그 사람에게 간다					
59	첫눈에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사귀는 편이다					
60	동창, 선후배, 동아리 등 모임에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가깝게 지낸다					
61	새 친구를 사귀는 일이 두렵지 않다					
62	방에 낯선 사람이 꼭 차 있을 때도 나는 거침없이 들어간다					
63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64	집안 살림 역할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부모님께 칭찬받는 일이 많다					
65	하루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고 지킨다					
66	내 감정을 잘 조절한다					
67	원치 않거나 무가치한 행동은 친구들이 권해도 하지 않는다					

다음은 평소 어머니와의 대화방식에 대해 묻는 설문입니다.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치세요. 똑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평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방식과 유사한 것에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1. 엄마는 너무하세요. 남(여)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그렇게 끊어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 1) 네가 지금 남(여)자 친구 만날 때니?
 - 2) 기분은 바쁘겠지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 3) 전화를 못 받게 해서 화가 난 모양이구나.
 - 4) 전화를 못 받아서 화가 나고 친구한테 미안한 생각도 드는 모양이구나.
 - 5) 엄마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네 입장을 존중해 주길 바라는구나.

2. 친구들과하고 바닷가로 캠핑 가기로 했어요. 이번엔 꼭 보내주셔야 해요.
 - 1) 넌 매일 놀 궁리만 하니? 공부는 언제 하려고.
 - 2) 가고는 싶겠지만 학생들이 무슨 캠핑이야.
 - 3) 이번엔 캠핑을 꼭 가고 싶은 모양이구나.
 - 4) 친구들도 사귄 걸 꼭 가고 싶은데 안 보내 줄까 봐 걱정이 되는 모양이구나.
 - 5) 기분도 전환하고 즐거운 추억도 만들 겸해서 이번엔 꼭 가고 싶은가 보구나.

3. 날씨가 더워서 짜증만 나고 공부가 잘 안돼요. 많이 해야 할 텐데요.
 - 1) 넌 탓도 많다. 공부하는데 날씨가 무슨 상관이나.
 - 2) 좀 덥더라도 참고해. 넌 끈기가 부족해서 걱정이야.
 - 3) 더운데 공부하느냐고 애 많이 쓰는구나.
 - 4) 더울 때에는 좀 쉬어가면서 해야지.
 - 5) 좀 쉬려무나.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공부가 더 잘될 수도 있을 거야.

4. 정말 정신차릴 수가 없어요. 과목수도 많고 수업 시간도 늘고 숙제도 많고 참 힘들어요. 선생님들도 무섭고요.

- 1) 뭐 거저 먹는 줄 아니? 너는 전에는 너무 편했어.
- 2) 힘들어도 어떡하겠냐, 고생 좀 해.
- 3) 분량이 많아서 힘이 드는 모양이구나.
- 4) 처음에는 힘들어도 넌 의지와 능력이 있어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야.
- 5) 넌 잘 이겨내서 언젠가는 기대 이상으로 네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거야.

5. 저 이번 일요일 친구하고 방송국에 가기로 했는데요. 괜찮겠죠? 이번 공연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 1) 넌 생각이 있니 없니? 다음주에 시험 본다면서 어제 그 모양이지?
- 2) 학생이 공부는 안하고 방송국 구경이나 다니면 뭐가 되겠니?
- 3) 방송국 구경은 가더라도 공부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지.
- 4) 요새 갑갑하니? 머리로 식힐 겸 갔다 오려무나.
- 5) 갔다 오려무나.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끔 친구들과 어울리고 스트레스도 풀어야지.

6. 엄마 돈 좀 주세요. “돈, 돈” 하니깐 짜증나시죠? (예상외로 지출이 많아져서 어머니가 의아해 하셨던 경험을 생각해서 답하시오)

- 1) 학생이 무슨 돈이냐? 왜 그렇게 해프냐?
- 2) 돈 쓸 일이 뭘지 몰라도 넌 맨 날 돈 타낼 궁리만 하는 것 같아.
- 3) 또 돈 쓸 일이 생긴 모양이구나.
- 4) 돈 쓸 일이야 언제나 있겠지만 네가 요즘 씹씹이가 헤픈 듯하여 걱정이구나.
- 5) 네가 돈을 규모 있게 쓰리라 믿고 있지만 요즘 어떤지 약간 걱정이 되는구나.

7. 제 거짓말 때문에 어머니가 화나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사실 어머니가 화가 나셨다는 가정 하에 답하시오).

- 1) 넌 걸핏하면 거짓말이지?
- 2) 다 큰 애가 그렇게 거짓말하면 못쓰는 법이다.

- 3) 그래 엄마 지금 화 좀 났다.
- 4) 이유야 어쨌든 자식이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는구나.
- 5) 네 사정은 이해하지만 솔직히 화가 나는구나. 엄마랑 솔직하게 의논했으면 더 좋았을 걸.

8. 오늘 수업 끝나고 친구랑 영화 보러 갔었어요. 안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표 두 장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 왔어요(내가 공부에 소홀해질까봐 걱정하셨다는 가정 하에 답하시오).

- 1) 넌 못된 친구 꺾임에 넘어가니? 학생이 무슨 영화니?
- 2) 영화 같은 것은 보지 말고 정신차리고 공부나 해.
- 3) 친구가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걱정이구나.
- 4)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오늘 할 공부를 소홀히 할까봐 걱정이구나.
- 5)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남은 시간에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걱정이구나.

9. 오늘 이 옷 입는다고 했잖아요. 안 빨아 놓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어머니께 믿고 부탁했던 일을 해 놓이지 않아서 당황했던 상황을 가정해서 답하시오).

- 1) 옷 하루 더 입으면 큰일 나니? 넌 맨 날 옷가지고 성화냐?
- 2) 보편 모르니? 내가 종일 놀고 안 빨 줄 아니?
- 3) 아유 나도 힘들어 죽겠다. 그럴 때도 있지. 그 옷 하루만 더 입어.
- 4) 네가 그러니 엄마 기분이 언짢구나. 엄마 사정도 이해해 주어야지.
- 5) 엄마 마음도 편치 않아. 오늘만 그냥 입고 가면 고맙겠구나.

10. 다른 사람(형제, 친척, 친구)이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요.

- 1) 넌 항상 그 아이(형제, 친척, 친구)에게 못하니까 그렇지.
- 2) 너도 그 아이(형제, 친척, 친구)처럼 열심히 해봐.
- 3) 그 아이(형제, 친척, 친구)가 너보다 더 나으면 기분이 나쁜가 보구나.

- 4) 그 아이(형제, 친척, 친구)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만은 않단 말이지?
- 5) 훌륭한 그 아이(형제, 친척, 친구)를 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비교되는 것같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한다는 말이구나.

11. 전 전에는 공부를 참 잘했는데 학년이 올라오니까 공부가 잘 안돼요. 아무래도 제 머리가 나쁜가봐요.

- 1) 너 정말 머리가 나빠졌구나.
- 2) 너도 한 때는 공부를 잘했지.
- 3) 요즘 공부가 쉽게 잘 안되나 보구나.
- 4) 공부가 잘 안될 때도 있지. 그렇다고 머리가 나빠진 것은 아니지.
- 5) 중학교 때 성적이 좋았으니깐 네 머리는 분명히 좋은 거야. 실망하지 말고 좀 더 노력해봐.

12. 호감이 많이 가는 친구일수록 접근하기가 곤란해요.

- 1) 별 싱거운 말을 다 듣겠구나.
- 2) 본 받을게 있는 친구라면 일단 사귀어 보도록 해.
- 3) 호감이 가는 친구일수록 접근하기가 더 곤란하단 말이지?
- 4) 호감 가는 친구일수록 네 태도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두려운 모양이구나.
- 5) 그런 친구가 있어 사귀고 싶으면 엄마와 같이 그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자.

13. 엄마, 학생 때 연애해 본 적 있으세요?(어머니가 학생시절에 누군가를 좋아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는 가정 하에 답하시오)

- 1) 쓸데없이 별것 다 묻는구나.
- 2) 엄마는 정숙한 모범생이었단다.
- 3) 특별한 경험은 아니었단다.
- 4) 조금 좋아하던 사람이야 있었지.
- 5) 그 나이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한 감정이지.

14. 엄마는 다른 사람 흉보신 적 있으세요?(엄마도 다른 사람을 흉보신 경험이 있다는 가정 하에 답하시오)

- 1)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 2) 엄마가 남의 흉을 보든 안보든 내가 알 바 아니다.
- 3) 세상에 흉 안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 4) 그러면 못쓴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막상 못된 사람을 보면 참기가 힘들어서 흉을 보게 되지.
- 5) 남을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흉을 보고 마음을 털어 내버리면 편해질 때도 있지.

15. 엄마는 제 성격이 침착하지 못하다고 늘 나무라시는데요. 제가 보기엔 엄마도 차분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엄마는 엄마의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예기치 않게 엄마의 결점을 발견했던 상황을 가정해서 답하시오).

- 1) 애가 못하는 말이 없네. 버릇없어!
- 2) 엄마 성격이야 이 정도면 괜찮지 뭐.
- 3) 그래, 엄마 성격이 좀 차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
- 4) 엄마도 침착하지 못한데 너도 그럴까 봐 걱정이구나.
- 5) 엄마 잔소리가 무척 듣기 싫었구나. 엄마도 스스로 침착하지 못한 면을 고쳐야겠구나.

16. 엄마 난 외모 때문에 고민이에요. 엄마도 외모 때문에 고민한 적 있으세요?(어머니도 외모 때문에 고민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는 가정 하에 답하시오)

- 1) 넌 너무 많이 먹어 탈이야.
- 2) 똥똥하건 날씬하건 그게 무슨 대수니?
- 3) 너희들 때는 누구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지.
- 4) 엄마도 학생 때 똥똥해서 고민을 꽤 했었어.
- 5)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놀리지는 않았지만 똥똥하다는 말은 들었지.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더라.

17. 맛있는 반찬 좀 해 주세요. 요즘 도시락 반찬이 이게 뭐예요.

- 1) 이 정도면 됐지.
- 2) 애가 웬 반찬 타령이야.
- 3) 엄마가 그렇게 반찬을 못해 주었니?
- 4) 도시락 반찬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구나.
- 5) 엄마가 좀더 도시락 반찬에 신경 써 주길 바라는구나.

18. 오늘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친구 사귀는 일 같은 대
인관계도 공부 못지않게 중요하대요.

- 1) 딴 생각 말고 그저 공부나 열심히 해.
- 2) 애야. 그런 건 대학교에 들어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
- 3) 선생님 말씀은 무조건 옳은 말씀이야.
- 4) 친구 사귀는 일도 공부 못지 않게 중요하단 말씀이지.
- 5)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인관계도 잘 배워야 훌륭한 사회인이 된다는 말씀이란다.

19. 가끔은 엄마에게 심정을 솔직히 털어놓기가 어려워요(고민이 있지만 웬지 어머니와
잘 통할 것 같지 않아 망설였던 상황을 가정해서 답하시오)

- 1) 다 키워 봤더니 혼자 잘났니?
- 2) 어린애는 모든 일을 엄마와 의논해야 한다.
- 3) 엄마에겐 네 심정을 솔직히 털어놓기 어려운 모양이지?
- 4) 엄마에게 스스럼없이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갖고 있나 보구나.
- 5) 할 말이 있나 보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이 엄마에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까?

다음은 평소 가족과의 관계를 묻는 설문입니다. 가장 잘 표현한 곳에 체크를 해주세요.

질 문	확실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					
2 우리 가족은 각자의 친구들을 알고 있고 그들을 인정해준다					
3 우리는 무슨 일이든 우리 가족끼리만 하려 한다					
4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끼리 제일 가깝다					
5 우리가족은 자유시간을 되도록 함께 보내려 한다					
6 우리 가족들은 서로간의 매우 친근감을 느낀다					
7 우리 가족은 가족이 함께 해야 할 일(예: 명절, 제사 등)이 있을 때는 가족 모두가 참석한다					
8 우리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예: 취미, 오락활동, 여가활동)을 잘 생각해 낸다					
9 우리가족은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경우 가족과 상의한다					
10 우리집에서는 가족의 일치단결을 매우 중요시 한다					

마지막으로 친구관계를 묻는 설문입니다. 자신의 경우와 비슷한 곳에 체크를 해주세요.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한 명 또는 어떤 무리의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겪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나는...

질문	전혀 없었다	한번 또는 두번	가끔	일주일에 한두번	일주일에 여러번
1 물어도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고 말을 걸 수도 없었다					
2 인사해도 노골적으로 무시당한 적이 있다					
3 점심시간이나 놀이시간에 소외되어 혼자 있는 적이 있다					
4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지게 되어 친구들과 멀어진 적이 있다					
5 다른 반 친구와도 놀지 못하게 심한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					
6 별명이나 신체특징에 관련된 놀림에 시달린 적이 있다					
7 “재수없어”, “꺼져버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8 다른 아이들 앞에서 심한 욕을 들은 적이 있다					
9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당한 적이 있다					
10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왔고 약오르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11 매점, 문방구 등에 강제로 심부름을 한 적이 있다					
12 툭툭 차이거나 날카로운 것으로 쿡쿡 찧리곤 했다					
13 숙제를 강제로 대신 해 준 적이 있다					
14 준비물이나 도시락을 강제로 빼앗긴 적이 있다					
15 주먹이나 발로 차이고 맞은 적이 있다					

<부록 2> 심리 · 사회적 성숙도 하위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영역	하위요인	조작적 정의
심 리 성 숙	정서 안정성	정서적 자극 상황에 직면할 때 그 정서적 자극을 올바르게 지각하고 수용하여 안정감이 있으며, 정서적 반응에 있어서도 자유스럽고, 인간적이며, 문화적이고 성숙한 수준을 느끼게 하는 상태를 말함
	자아 정체감	한 개인이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었으며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 지니는 지각으로서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성, 즉 자기다움에 대한 정확한 지각과 이에 부합되는 자기 통합성과 자기 동질성을 견지해 나가려는 의식과 노력을 일컫음
	성 정체감	한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기본적인 생물학적 특성을 의식, 인정하고 정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그 시대 그 문화권내에서 요구하는 남성적 또는 여성적 성격 특성을 가졌다고 보는 가 하는 정도를 말함
	심리적 자기 효능감	심리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며 자기 조절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실패와 시련, 난관에 부딪칠 경우에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극복하려는 자세를 말함
	자존감	자기 스스로를 유능하고 귀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인정, 자기 인식, 자기 가치, 자긍심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나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가치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말함
사 회 성 숙	대인관계 친화력	어떤 모임이나 장소이든지, 누구와 어떤 목적과 어떤 대화를 나누더라도 편안하면서도 쉽게 타인과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함
	학교생활 적응력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사제관계, 친구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 행사 및 특별활동에서 자기 욕구와 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만족감속에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의사소통능력	대화시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고 듣기와 말하기의 역할을 주고 받으면서 논리적으로 말하고 합리적으로 경청, 판단하는 능력을 일컫음
	자기관리능력	자신의 시간관리, 교우관계, 학교생활, 종교생활, 스케줄, 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내 스스로 내 일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말함
	사회적 유능감	현재 사회에서 통용되는 행위의 규준과 관습, 습관 등에 동조하며 타인과의 상호적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발전적,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는 생산능력과 자질을 일컫음